

# 예티엔스(葉天士)의 肝風證治의 특징에 관한 논

상하이(上海)中醫學院 통야오(童瑤) 씀  
한국한의학연구소 의사문헌연구실 신순식 옮김

핵심용어: 예티엔스(葉天士) 『臨證指南醫案』  
肝風

肝風은 곧 肝陽化風을 말하는 것으로 청대의 의가인 예궈이<sup>2)</sup>(葉桂, 1667~1746, 字 天士, 號 香岩, 江蘇吳縣人)가 제일 먼저 제창한 것이다. 이는 肝의 陽氣가 위로올라가는 것이 지나쳐 제약할 수 없어서 內風의 동요를 일으킨 일종의 병리현상이다. 현재 중의의 임상상에도 하나의 病證名으로 되어 있고 眩暈 振顫 抽搐 痙厥 사지마비 손발 떨림 口眼歪斜 半身不隨나 혹은 突然昏仆 등의 증후로 개괄할 수 있다. 예티엔스의 『臨證指南醫案』속에는 肝風證治와 관계된 내용이 지극히 풍부하다. 「肝風」門 이외에 기타 예를들면, 「中風」, 「眩暈」, 「頭風」, 「痙厥」, 「虛勞」, 「淋濁」, 「產後」, 「目疾」, 「耳疾」 등의 여러 門속에 많은 病證과 肝陽化風의 病機가 들어 있다. 예씨가 말하는 “간풍”에 담겨 있는 의미와 응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임증지남의안』속에 간풍증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예티엔스의 “간양화풍”의 이론을 인식하고 前人의 “內風”설과 구별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개괄하면 대략 다음의 몇가지 특징이 있다.

一. “水는 木을 함양하지 못함”(水不涵木)은 肝風病機에 대한 예티엔스의 高度의 개괄이다.

청대 이전의 의가는 내풍의 병기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증풍을 예로 들면, “主火” “主氣” “主痰” 등 견해가 차이가 난다. 비록 논하는 바가 각각 치우쳐 있고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末은 말하고 있으면서 本은 잊는 혐의가 있는 듯 하다. 예티엔스는 前賢의 百家의 설을 분석하고 전인의 “내풍”론을 계승한 기초위에서 또 자기의 풍부한 임상체함과 결합시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아 “內風은 바로 몸속의 陽氣가 變動한 것”(內風, 乃身中陽氣之變動<sup>3)</sup>)이라는 설을 제시했다. 또 곁들여서 진일보하게 그 병기의 열쇠는 “精血이 衰耗하여 水는 木을 涵養하지 못하고 木은 滋榮을 적게 받아 肝陽이 亢盛에 치우치게 되면 內風이 때로 일어남을”(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sup>4)</sup> 밝혔다. 예티엔스가 말하는 내풍은 증풍에 국한하지 않

1) 上海中醫學院 童瑤, 「論葉天士肝風證治之特點」, 『上海中醫藥雜誌』 第5期, 1992: 35-38.를 번역한 것이다.

2)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의 중국음에 대한 우리 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49-361.)에 의한 것이다.

3) 葉天士 著 徐靈胎 評,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서울: 翰成社, 1982: 18;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19.

4)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18.

고 肝陽上亢 內風動越을 포함한 일계열의 증후를 말한다. 『임증지남의안』에는 內風動越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매우 많은 논술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經營을 관리하여 神과 精이 손상되면 陰이 위에서 일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內風이 움직이고 비약하게 된다.”(操持經營, 神耗精損, 遂令陰不上朝, 內風動躍.)<sup>5)</sup>; “木火體質인데 다시 여기에 鬱勃<sup>6)</sup>이 더해지면 肝陰이 더욱 소모되어 厥陽이 오르게 된다.”(木火體質, 復加鬱勃, 肝陰愈耗, 厥陽升騰.)<sup>7)</sup>; “고령이면 水가 이지러져 肝陽이 升逆하여 이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高年水虧, 肝陽升逆無制.)<sup>8)</sup>; “遺產한 뒤에 惡露가 뚝뚝 떨어지면 營血이 속에서 이지러져 厥陽이 이로말미암아 鼓動치게 된다.”(小產後, 惡露淋漓, 營血內虧, 厥陽由是鼓動.)<sup>9)</sup>; “溫熱의 邪氣가 이미 厥陰을 침입해 들어가면 陰이 손상되어 風陽上巔을 일으킨다.”(溫熱已入厥陰, 陰傷致風陽上巔.)<sup>10)</sup> 이상의 서술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간양상항 肝風內動을 일으키는 원인이 煩勞過度나 고령으로 몸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산후에 血虛하거나 혹은 溫熱의 邪氣가 內陷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본병기는 한결같다. 모두 陰血이 모자라고 肝陽이 上亢하여 간풍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임증지남의안』속에서 간풍을 논한 병기는 대다수 “肝血과 腎液이 몸안에서 마른다”(肝血腎液內枯)<sup>11)</sup> “腎이 虛하면 液이 적어진다”(腎虛液少)<sup>12)</sup> “精과 血이 몸안에서 虛하다”(精血內虛)<sup>13)</sup> 등으로 천술한 것이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陰이 虛하여 陽이 亢盛된다”(陰虛陽亢)<sup>14)</sup> “水가 木을 함양하지 못한다”(水不涵木)<sup>15)</sup> 는 간풍병기에 대한 예티엔스의 고도의 개괄이라는 사실이다.

예티엔스는 水가 木을 함양하지 못하여(水不涵木) 肝陽이 風으로 된다(肝陽化風)는 것으로써 간풍증의 기본병기를 삼았기 때문에 임

상변증상 下虛上實을 간풍변증의 열쇠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上實”은 즉 風陽이 위로 올라가 巔頂을 요란하여 머리아픔 어지럼 귀 울림 火가 오름 눈아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냄 심하면 어지러워 넘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이른바 下虛는 즉 下焦의 肝과 腎의 精과 血이 이지러지고 허하여 “사지가 痿症으로 힘이 없이 걸음”(肢痿乏力步趨)<sup>16)</sup> “허리와 무릎이 시고 무르다”(腰膝痠痺)<sup>17)</sup> “뼈속이 찌르는 듯이 아프다”(骨中刺痛)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血虛하여 간풍이絡에 숨어 침입하여 사지마비 偏枯 손발떨림 癱瘓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티엔스가 간풍의 形證을 논할 때 下虛上實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예컨대 「중풍」문에서 “脈象은 弦動이고 어지럽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걷는데 숨이 차고 힘이 없고 痔核이 밑으로 내민다. 이것은 아직 늙지 않았는데 쇠약하고자하는 것으로 腎陰이 弱하여 收納에 권한이 없게 되고 肝陽은 熾盛하여 虛風이 몸의 구멍을 막는다. 이는 바로 上實下虛의 현상이다.”(脈弦動, 眩暈耳聾, 行走氣促無力, 肛痔下垂, 此未老欲衰, 腎陰弱, 收納無權, 肝陽熾, 虛風蒙竅, 乃上實下虛之象.)<sup>18)</sup>라고 했다. 또 「간풍」문에서는 “생각이 뱅뱅돌아 五志의

6) 鬱勃: “鬱”은 ‘우울하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맷히다’, ‘쌓이다’, ‘영키다’를 뜻하고; “勃”은 ‘왕성하다’, ‘다투다’, ‘이그러지다’의 뜻이 있어 “鬱勃”은 심하게 맷힌 것을 말한다.

7)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위의 책, 29.

8)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1.

9) 『臨證指南醫案』권9 「產後」. 앞의 책, 715.

10) 『臨證指南醫案』권7 「癱厥」. 앞의 책, 554.

11)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1.

12)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8.

13)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3.

14)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30.

15)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18.

16)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14.

17)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1.

18)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9.

5)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2.

陽을 擾動시키고 陽이 內風으로 되어 변화가 그치지 않는다. 저 陽의 움직임이 제어되지 않으면 모든 臟陰은 적게 갈무리되어 上實下虛證을 자각하게 된다.”(因榮思擾動五志之陽, 陽化內風, 變幻不已. 夫陽動莫制, 皆臟陰少藏, 自覺上實下虛.)<sup>19)</sup>라 했고, 「산후」문에서는 “產後驟加驚恐, 陽上督冒爲厥, 左肢麻木, 耳竅失聰, 皆陽挾內風, 混入清竅, 以上實下虛.”(產後驟加驚恐, 陽上督冒爲厥, 左肢麻木, 耳竅失聰, 皆陽挾內風, 混入清竅, 以上實下虛.)<sup>20)</sup>라 했다. 간풍증은 肝陽이 亢逆하고 제어할 수 없어서 생긴 소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임상증후는 종종 風陽上擾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바로 장산레이(張山雷, 1873~1934, 字 壽頤, 嘉定人)가 『中風辨論』에서 말한 “그 外形에는 반드시 肝陽證이 나타나는 것으로 징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낮빛이 붉고 입술이 빨갱고 숨쉬는 것이 거친 것 등이 이를 말한다.”(其外形必有肝陽之見證可徵, 如面赤脣紅 氣粗息高等皆是.)라 한 것과 같다. 『임증지남의안』의 「간풍」을 예로 삼아보자. 그 속에 있는 많은 의안은 風陽上擾의 “上實”증후를 논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陽에 內風을 끼고 윗 부분을 巔하면 눈이 어둡고 귀에 소리가 나며 잠을 못 이루게 된다.”(陽挾內風上巔, 目昏耳鳴不寐.)<sup>21)</sup>; “五志陽氣가 內風을 끼고 이것이 몸의 맑은 구멍을 위에서 요란하게 하면 어지럽고 귀에 소리가 나며 눈이 아프게 된다.”(五志陽氣挾內風上擾清空, 頭眩耳鳴, 目珠痛.)<sup>22)</sup>; “肝風陽氣가 陽明의 虛한 틈을 타고 윗 부분을 덮어버리면 잇몸이 붓고 아프게 된다.”(肝風陽氣乘陽明之虛上冒, 牙肉腫痛.)<sup>23)</sup>; “脈象이 數이고 낮빛이 붉은 것은 肝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脈數面赤, 肝風尙動.)<sup>24)</sup>; “오른쪽 脈象이 弦이고 머리가 멍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火가 오르는 것, 이것은 肝陽上鬱로 清竅가 맑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脈右弦, 頭脹耳鳴火升, 此肝陽上

鬱, 清竅失司.)<sup>25)</sup> 등이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예티엔스가 간풍의 形證을 논할 때는 종종 “上實”을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였지만, 그러나 병기의 근본을 논할 때는 또한 肝과 腎의 精과 血이 이지러지고 허한 “下虛”를 잊어서는 안되고 동시에 이를 구체적인 치료방법속에 구현시켰다.

신맛과 단맛이 陰이 된다는 법(酸甘化陰法)은 예티엔스가 간풍을 치료한 기본방법이다. 이를 테면, 「간풍」문의 첫 조에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內風은 바로 몸안의 陽氣가 움직이고 변화한 것으로 甘酸한 맛을 지닌 한약이 여기에 알맞다. 生地黃 阿膠 牡蠣粉 炙甘草 山萸肉炭을 쓴다.”(內風, 乃身中陽氣之動變, 甘酸之屬宜之. 生地 阿膠 牡蠣 炙甘草 山萸肉炭.)<sup>26)</sup> 이른바 酸甘化陰法은 五味子 木瓜 芍藥 烏梅 山茱萸肉 등의 신맛의 한약과 生地黃 玄參 麥門冬 沙蔘 石斛 阿膠 甘草 枸杞子 등의 단맛의 한약으로 肝과 腎의 陰液을 滋養을 삼아서 陽和風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예티엔스는 “신맛이 나는 한약은 몸안의 陰을 부드럽게 한다”(以酸能柔陰), “단맛이 나는 한약은 몸의 急함을 완만하게 해준다”(甘以緩其急), “肝은 단단한 臟(剛臟)으로 부드럽고 적셔주는(柔潤) 한약이 아니면 이를 調和시킬 수 없다.”<sup>27)</sup>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내경』의 “신맛이 肝을 낳는다”(酸生肝), “肝의 질환이 急하면 急히 단맛이 나는 한약을 써서 이를 완만하게 한다”(肝苦急, 急食甘以緩之)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예티엔스는 柔肝養陰法으로 간풍을 치료하는 大法으로 삼고 있는데, 그의 의안속에 충

19)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22.

20) 『臨證指南醫案』 권9 「產後」. 앞의 책, 697.

21)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20.

22)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20.

23)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20.

24)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27.

25)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26.

26)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19-20.

27) 『臨證指南醫案』 권1 「中風」. 앞의 책, 3.

분히 체현되어 나온다. 예를 들어 보자. 「간풍」문에 의안이 모두 37례가 있는데 그 중 滋陰柔肝法으로 치료를 삼은 것이 29례이고 다른 법과 겹쳐서 치료한 것이 4례가 되며 다른 법으로 치료한 것이 4례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응용할 때, 예씨는 간풍의 標本緩急의 차이에 따라 거기에 맞는 方藥을 채택했다. 만일 일반적인 陰虛陽亢證이면 대다수 甘味養陰法을 주로 했다. 예를 들어 보자. “肝風陽氣가 陽明의 虛한 틈을 타고 윗 부분을 덮어버리면 잇몸이 붓고 아프게 된다. 여기에는 和陽熄風法을 제의하게 되고 生地黃 阿膠 牡蠣粉 天門冬 茯神 川斛 旱蓮草 女貞子를 쓴다.”(肝風陽氣乘陽明之虛上冒, 牙肉腫痛, 議和陽熄風. 生地 阿膠 牡蠣 天冬 茯神 川斛 旱蓮草 女貞子.)<sup>28)</sup> 만일 풍화가 상요하여 熱象이 뚜렷하면 淸肝 涼肝의 한약을 배합했다. 만일 “脈象이 數이고 낮빛이 붉으면 肝風이 여전히 움직이는 것으로 和陽熄風法이 적당하다. 鮮生地 元參 羚羊角 連翹 菖蒲根 鮮銀花 麥門冬을 쓴다.”(脈數面赤, 肝風尙動, 宜和陽熄風. 鮮生地 元參 羚羊角 連翹 菖蒲根 鮮銀花 麥冬.)<sup>29)</sup> 만일 陽의 亢盛이 비교적 盛하면 標와 本을 겹쳐서 치료해야하므로 介類를 배합해서 潛陽熄風시켜야 하니 牡蠣粉 龜版 鱉甲 石決明 등이 쓰이고; 심한 자는 龍骨 磁石英으로 重鎮熄風시키며; 營血이 虧虛하고 간양화풍이면 養血熄風의 한약을 투여해야 한다. 예컨대, “緩肝潤血熄風法에는 製首烏 枸杞子 當歸身 冬桑葉 三角胡麻 柏子仁 茯神 天門冬 黑稽豆皮를 쓴다.”(緩肝潤血熄風, 製首烏 杞子 當歸身 冬桑葉 三角胡麻 柏子仁 茯神 天冬 黑稽豆皮.)<sup>30)</sup>

## 二. 陰虛를 논하면서 陽損을 잊어서는 안되고 溫通法은 柔補法속에 붙어 있다.

예티엔스는 명대 의가인 자오시엔커(趙獻可,

28)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0.

字 養葵, 號 醫巫閭子, 鄞縣人) 장정위에(張景岳, 1563~1640, 名 介賓, 字 會卿, 別號 通一子) 등의 命門學說 陰陽互根 精氣互化 등의 이론의 영향아래에서 陰精은 命門水火의 물질 기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간풍증이 비록 음허를 그 본으로 하고 있지만 음허가 날로 오래되면 반드시 陰精이 이지러지고 허하게 되어 음의 손상이 양에 영향을 주어(陰損及陽) 陰과 陽이 동시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는 음과 양이 동시 손상하는 것과 氣와 血이 쇠약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肝이 濡養을 받지 못하여 간풍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임상에서는 중풍에 걸린 뒤나 혹은 40세 이후 精과 血의 虛衰가 비교적 심한 자에게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중풍」문에서는 “왼쪽의 팔다리가 나무를 만지는 것처럼 뻣뻣하고(左肢麻木) 膝蓋骨안이 땀겨다 늘어났다하고 갑자기 침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中年 이후에 精과 血이 몸안에서 虛하면 虛風이 자연 움직이게 된다. 이것은 바로 陰속의 陽이 損傷된 것이다.”(左肢麻木, 膝蓋中牽縱忽如針刺. 中年後, 精血內虛, 虛風自動, 乃陰中之陽損傷.)<sup>31)</sup>라 했다. 임상에서는 대다수 偏枯 사지마비 말더듬거림 神呆 오줌지림 足痿 등이 뚜렷한데 이는 “下虛”의 현상이다.

精과 血이 지극히 虛한(精血虛極) 것과 음의 손상이 양에 영향을 주어(陰損及陽) 음과 양이 동시에 손상된(陰陽並損) 증이 나타난 것에 대해 예티엔스는 “溫法 柔法 通法 補法”(溫柔通補)으로 치료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보면, “陰과 陽이 함께 손상될 경우, 陰이 없으면 陽이 化할 수 없다. 그러므로 溫柔와 濡潤의 通補法에 알맞은 예컨대, 地黃飮子와 還少丹類가 적당하다.”(陰陽并損, 無陰則陽無以化, 故以溫柔濡潤之通補, 如地黃飮子 還少丹之類.)<sup>32)</sup> 이것

29)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7.

30)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1.

31)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3.

32)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18.

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예티엔스가 말하는 “溫法 柔法 通法 補法”(溫柔通補)는 실제로 허지엔(河間)의 地黃飮子중의 溫腎陽과 滋腎陰을 병용한 뜻을 계승한 것이다. 즉 溫補肝腎法과 甘柔養陰法이 결합한 것이다. 다른 것은 예티엔스는 附子 肉桂의 剛燥한 한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는 “肝은 단단한 臟이다”(肝爲剛臟), “腎이 虛한데는 燥한 한약은 禁한다”(腎虛忌燥)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滋陰의 기초위에서 性이 부드럽고 단단하지 않은 溫腎의 한약을 배합한 것이다. 이를 테면, 肉蓯蓉 沙苑 巴戟天 枸杞子 등이다. 예컨대, 「중풍」문에서는 “中風에 걸린 뒤에 사지가 뻣뻣하고 감각이 없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걸지 못하는 것은 肝과 腎의 精과 血이 손상되어 지쳐있고 虛風이 絡을 움직인 것으로 下焦가 차고 대소변은 보지 못하게 된다. 모든 腎虛한데는 燥한 한약은 금하고 辛潤하고 溫한 한약을 쓴다. 肉蓯蓉 枸杞子 當歸 柏子仁 牛膝 巴戟天 川斛 小茴香을 쓴다.”(中風以後, 肢麻言蹇, 足不能行, 是肝腎精血殘遺, 虛風動絡, 下寒, 二便艱阻. 凡腎虛忌燥, 以辛潤溫藥. 肉蓯蓉 枸杞子 當歸 柏子仁 牛膝 巴戟 川斛小茴)33) “힘을 내고 애를 쓰면 精이 자지에서부터 방울방울 나오게 된다. 이미 두 귀는 밝지 못하고 腎竅는 제기능을 잃어버려 虛象이 뚜렷하다. 腎液이 虛耗하고 肝風이 활개를 치면 몸의 사지가 나무처럼 뻣뻣하여 감각이 없고 內風이 암암리에 침입하여 痲中의 累가 많게 된다. 滋液熄風法과 溫柔한 한약으로 肝과 腎을 涵養하고, . . . . ., 熟地黃 枸杞子 肉蓯蓉 石菖蒲 當歸 沙苑 巴戟天 遠志를 쓴다.”(用力努掙, 精從溺管漚出. 已經兩耳失聰, 腎竅失司, 顯然虛象. 凡腎液虛耗, 肝風鷗張, 身肢麻木, 內風暗襲, 多有痲中之累. 滋液熄風, 溫柔藥涵養肝腎, . . . . ., 熟地 枸杞子 肉蓯蓉 石菖蒲 當歸 沙苑 巴戟 遠志)34)라 했다. 만일 陽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 예티엔스는 滋陰

法으로 주를 삼고 여기에 한 두 가지의 溫柔한 한약을 배합해서 “약간 그 陽을 집적거렸다.”(微逗其陽) 또 예를 들어 보면, “液이 마르고 下焦가 이지러지고 陽에 內風을 낀 것이 윗 부분을 끌어당기고 陰은 위를 잊지 못해, 舌絡이 뻣뻣하면 말을 더듬거리고 氣가 脈에 없으면 사지의 痿症으로 힘이 없이 걸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肝과 腎臟의 陰이 본래 虛한 것이니, 鎮補法에 약간 집적거리 通陽시키는 法을 쓴다. 臟液이 虛하면 순전히 溫한 한약은 받질 못한다. 水製熟地黃4兩 阿膠2兩 女貞實2兩 稽豆皮2兩 淡肉蓯蓉1兩 茯神2兩 早蓮草2兩 川石斛3兩을 精羯羊肉膠를 써서 丸을 빚어 쓴다.”(液燥下虧, 陽挾內風上引, 陰不上承, 舌絡強則言蹇, 氣不住脈則肢痿乏力步趨. 凡此皆肝腎臟陰本虛, 鎮補之中, 微逗通陽爲法. 以臟液虛, 不受純溫藥耳. 水製熟地4兩 阿膠2兩 女貞實2兩 稽豆皮2兩 淡肉蓯蓉1兩 茯神2兩 早蓮草2兩 川石斛3兩, 用精羯羊肉膠爲丸.)35)라 했다. 처방중에는 두터운 맛의 質이 무거운 熟地黃 阿膠 精羯羊肉을 重用해서 填精補髓하고 있지만, 肉蓯蓉의 溫柔한 한약을 배합해서 “약간의 그 陽을 집적거리”(微逗其陽) 陰損及陽을 방지하고 있다.

예티엔스의 “陰과 陽이 함께 손상됨”(陰陽並損)의 이론과 “溫法 柔法 通法 補法”(溫柔通補)의 처방은 전인의 내풍병기이론과 처방에 대한 발전이다. 전인은 내풍을 陰虛와 陽虛로 구별하여 논하고 치료도 補陰法과 補陽法으로 차이를 두고 한약을 썼다. 예를 들어 보자. 정위에(景岳)은 非風을 論治하면서 “火가 虛한 자는 大補元煎 左歸飲 右歸飲 八味地黃丸의 類로 이를 主治하는 것이 알맞은데, 거의 火의 根源을 복돋을(益火之源) 수 있고; 水가 虛한 자는 左歸丸 六味地黃丸의 類로 이를 主治하는 것이 알맞은데, 거의 水의 主를 튼튼히(壯水之主) 할 수 있다.”(火虛者, 宜大補元煎 左歸

33)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4.

34)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3-4.

35)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14.

飲 右歸飲 八味地黃丸之類主之, 庶可以益火之源; 水虛者, 宜左歸丸 六味地黃丸之類主之, 庶可以壯水之主.)」(『景岳全書』 「雜證謨」 「非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에티엔스는 陽虛를 논할 때 陰虛를 本에다 두고 음허가 날로 오래 되면 양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치료도 滋陰填精法을 주로 쓰고 濫補한 한약을 배합해서 썼다. 거기다가 陰液이 이미 이지러지면 濫燥한 것을 감내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性이 부드럽고 단단하지 않은 濫柔濡潤한 한약을 골라서 썼고 性이 단단하고 濫燥한 附子 肉桂 등의 한약은 쓰지 않았다. 이로써 예씨는 간풍병기의 분석에 대해 세밀하고 처방을 내고 한약을 투여하는 뜻이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 三. 병기를 논할 때는 肝에서 멀어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전부에 肝에 매달려서도 안된다.

에티엔스는 “肝陽은 風이 된다”(肝陽化風)론에서 내풍병기는 그 책임이 肝에 있음을 제시했다. 다른 한 면은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간양은 때문에 潛藏할 수 있고 간풍은 때문에 평온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는 “전적으로 腎水에 의존해서 이를 함양하고 血液으로써 이를 濡養하고 肺金의 清肅下降의 명령으로써 이를 和平하게 하며 中宮敦阜의 土氣로써 이를 배양하면 단단하고 剛勁(剛勁) 質이 柔和의 體를 얻게 되어 드디어 그 條達暢茂의 性이 된다.”(全賴腎水以涵之, 血液以濡之, 肺金清肅下降之令以平之, 中宮敦阜之土氣以培之, 則剛勁之質, 得爲柔和之體, 遂其條達暢茂之性.)<sup>36)</sup>라 했다. 이는 병리상황아래에서 일단은 腎陰이 虧虛한 것과 心血이 虧耗한 것과 肺가 清肅기능을 잃은 것과 中土가 虛衰한 것은 모두 肝이 濡養을 받지 못하거나 肝木이 제어를 받지 못하고 肝陽이 亢逆해서 간풍이 내동한 것임

36)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31.

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에티엔스는 간풍병기가 비록 간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또한 간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各臟의 병변이 모두 간에 반영되어 간풍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에티엔스의 이러한 견해는 간풍에 대한 그의 변증논치속에 체현되어 있다.

에티엔스가 간에 대한 다른 장의 병변의 영향을 논할 때, 腎水虛衰로 水가 木을 함양할 수 없음을 간풍증의 주된 병기로 삼은 이외에도 東垣(東垣)의 脾胃學說의 영향아래 더욱 肝과 胃의 관계를 중시했다. 그는 “대개 肝은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고, 胃는 병을 傳하는 곳이다.”(蓋肝爲起病之源, 胃爲傳病之所.)<sup>37)</sup>, “저 肝風이 몸안에서 요동을 치면 陽明이 가장 그 충격과 침범을 당한다.”(夫肝風內擾, 陽明最當其衝犯.)<sup>38)</sup>라고 생각했다. 발병상 이미 “대개 陽明의 胃土가 이미 虛하면 厥陰肝風의 振動이 몸안에서 일어난다.”(蓋陽明胃土已虛, 厥陰肝風振動內起.)<sup>39)</sup>로 인할 수 있고, 또 “肝陽과 內風이 妄動하고 消燬하면 그것은 陽明에 침범하게 된다.”(肝陽內風, 妄動消燬, 犯及陽明.)로 인할 수도 있다. 『임증지남의안』속에는 이런 면과 관련된 논술이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陽明의 氣가 쇠약하면 厥陰의 風이 움직이게 된다”(陽明氣衰, 厥陰風動) “肝風鴟張, 胃氣必虛.”(肝風鴟張, 胃氣必虛.)<sup>40)</sup> 등이 있다. 변증상 주로 陽亢風動과 胃土虛弱, 升降失常이나 陽明의 脈이 虛하여 筋骨을 묵고 機關을 이롭게 할 수 없는 등의 증후가 병존하는 것으로써 변증근거를 삼는다. 이를 테면, “胃가 虛하고 肝風이 몸안에서 진동하면 痰을 게우고 기침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사지가 뻣뻣하여 감각이 없고 땀이 나며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胃虛, 肝風內震, 嘔痰

37) 『臨證指南醫案』 권3 「木乘土」. 앞의 책, 190.

38) 『臨證指南醫案』 권1 「肝風」. 앞의 책, 30.

39) 『臨證指南醫案』 권6 「泄瀉」. 앞의 책, 468.

40) 『臨證指南醫案』 권2 「吐血」. 앞의 책, 123.

咳逆, 頭痛眩暈, 肢麻, 汗出寒熱.)<sup>41)</sup>이고 또, “胃脘이 저리고 목구멍이 막히며 筋이 떨리고 살이 감각이 없는 것은 모두 風木이 지나치게 움직인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陽明이 날로 쇠약해진다.”(院痺咽阻, 筋惕肌麻, 皆風木過動, 致陽明日衰.)<sup>42)</sup>이다. 치료상 예티엔스는 中宮培養法을 모방했는데, 그는 “肝風陽이 요동을 치면 胃絡이 반드시 虛해진다.”(肝風陽擾, 胃絡必虛.) “急히 中宮을 培養하여 몸속에 주춧돌과 기둥이 있게 되면 風陽이 위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急宜培養中宮, 中有砥柱, 風陽不得上越.)<sup>43)</sup>라고 인식했다. 한약으로는 人參 黃芪 白朮 茯苓 甘草 當歸 등을 썼다. 예컨대, 의안에서는 일찌기 “神의 손상과 思慮가 있으면 肉脫하고 意의 손상과 憂愁가 있으면 사지를 못쓰게 되는데 이는 모두 痿象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 陽明의 脈이 虛하고 여기에 憂愁와 답답함이 첨가되면 厥陰風이 움직이고 木橫土衰하게 된다. 여기에는 증초를 배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 . . , 黃芪 於朮 桑寄生 天麻 白疾藜 當歸 枸杞子 菊花汁을 꿀을 넣어 丸을 빚어 복용한다.”(神傷思慮則肉脫, 意傷憂愁則肢廢, 皆痿象也. 緣高年陽明脈虛, 加以愁煩, 則厥陰風動, 木橫土衰, 培中可效. . . . . , 黃芪 於朮 桑寄生 天麻 白疾藜 當歸 枸杞 菊花汁, 加蜜丸.)<sup>44)</sup>라고 기재해 놓았다. 처방속에서 예씨는 胃氣虛肝風動을 치료할 때 종종 培土法과 滋肝法 泄肝法을 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胃陰이 부족하면 養胃汁해서 熄風을 했는데 한약으로는 人參 麥門冬 知母 粳米 등을 썼고; 胃陽이 虛衰하면 護陽安胃法이 적당한데 人參 附子를 主藥으로 삼았고; “대개 陽明의 胃土가 이미 虛하면 厥陰肝風의 振動이 몸안에서 일어나는”(蓋陽明胃土已虛, 厥陰肝風振動內起.)<sup>45)</sup> 肝風犯胃證에 대해서 예씨는 “단맛의 한약으로 胃를 다스리고 신맛으로 肝을 제어한다.”(甘以理胃, 酸以制肝.)<sup>46)</sup>라는 肝과 胃를 동시에 치료하는 법을

쓸 것을 주장했는데, 그 한약은 理胃에는 人參 茯苓 甘草 廣皮를 썼고; 制肝에는 烏梅 木瓜 등을 썼다.

이 밖에, 예티엔스의 의안속에는 또 心血虧耗나 혹은 心營內熱이 肝에 영향을 주어 간풍 내동을 일으킨 논술이 있다. 이를 테면, “營이 虛하고 內風이 거슬러 올라가면 心悸와 頭暈이 나타난다. 炒枸杞子 柏子仁 三角胡麻 川斛 生左牡蠣 冬桑葉을 쓴다.”(營虛, 內風逆, 心悸頭暈. 炒杞子 柏子仁 三角胡麻 川斛 生左牡蠣 冬桑葉.)<sup>47)</sup>, “脈象이 오른쪽은 虛하고 왼쪽은 數하며 營液이 몸안에서 소모되고 肝陽內風이 震動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며 잠이 잘 안오는 증상이 나타난다. 生地黃 阿膠 麥門冬 白芍藥 小麥 茯神 炙甘草가 쓰인다.”(脈右虛左數, 營液內耗, 肝陽內風震動, 心悸眩暈少寐. 生地 阿膠 麥冬 白芍 小麥 茯神 炙甘草.)<sup>48)</sup>이다. 이상의 두 의안에서 전자는 心血虧虛로 내풍이 上擾했기 때문에 養血熄風法이 주가 되고 柏子仁 등 養心安神한 한약을 더 넣어 쓰고; 후자는 心營內熱로 風陽이 內擾한 것이다. 營液이 몸안에서 손상되고 陰이 陽을 함양하지 못한 소치이다. 때문에 酸甘化陰法으로 주를 삼고 小麥 茯神 등의 安神寧心의 한약을 배합하여 쓴다. 만일에 思慮煩勞와 身心이 지나치게 움직이고 風陽이 몸안에서 擾亂을 떨면 營熱心悸 驚怖不眠 脇中動躍 등증이 나타날 경우 예티엔스는 酸棗仁湯 補心丹 枕中丹 加減을 많이 투여하였다. 이것으로써 예티엔스가 간풍을 치료할 때 비록 養血寧心이라는 면도 중시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滋陰柔肝法의 기초위에서 養心安神의 한약을 배합해서 치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1)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8.

42)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9.  
 43) 『臨證指南醫案』권2 「吐血」. 앞의 책, 123.  
 44) 『臨證指南醫案』권1 「中風」. 앞의 책, 6.  
 45) 『臨證指南醫案』권6 「泄瀉」. 앞의 책, 468.  
 46) 『臨證指南醫案』권6 「泄瀉」. 앞의 책, 468.  
 47) 『臨證指南醫案』권1 「眩暈」. 앞의 책, 34.  
 48) 『臨證指南醫案』권1 「肝風」. 앞의 책, 25.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예티엔스의 간풍증치는 매우 독특한 곳이 많고 전인의 내풍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가 논한 간풍병기는 음허를 본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양허라는 면도 무시할 하지 않았으며; 장부를 논함에 주된 책임이 간에 있지만 또한 기타 장부의 영향을 배척하지 않아 실제로 전인의 이론을 一體로 융합시키고 “肝陽化風”의 논술속에다 관통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의 병기이론의 一大發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풍증의 치법과 한약사용은 더욱 많은 독특한 경험이 있어 꽤 후인이 임상에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